

“오지호 ‘남향집’ 창작은 1960년대 아닌 1939년”

김희경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독립미술관 오지호전 국제세미나서 주장 큰 딸 편지·팜플렛 등 자료 제시...미술계 ‘오지호 미술관’ 건립 목소리도

오지호 화백의 대표작 ‘남향집’의 창작연도가 1960년대가 아닌 1939년이라는 주장이 최근 열린 국제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과 맞물려 오지호 작품들을 별도로 전시할 수 있는 미술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견해도 미술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남향집’은 오지호가 송도고등보통학교 미술교사로 재직하던 시절의 초당을 그린 작품이다. 이 작품이 그려진 시기가 1939년이라는 견해는 현재 독립미술관에서 진행 중(내년 3월 2일까지)인 ‘인상주의와 오지호: 빛의 약동에서 색채로’전과 연계한

국제 세미나에서, 김희경 전남대 학술연구교수(미술학 박사)가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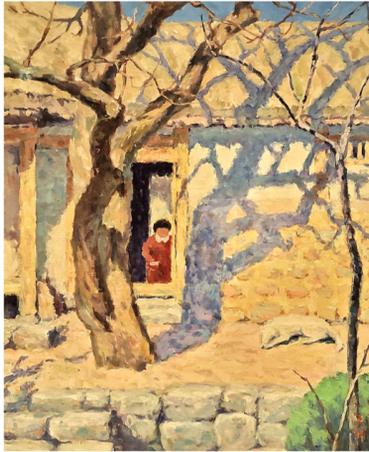
김 교수는 지난 11월 28일 열린 세미나에서 ‘오지호화백작품전(1948) 해제와 ‘남향집’(1939)의 제작년도’를 주제로 발제문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이번 전시와 관련 전시구성에 따른 텍스트 작성, 아카이브 자료 수집 등 공동 큐레이터를 맡았다. 전남대 미술교육과 졸업, 전남대 예술대학 1호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큐레이터협회 회원 및 미술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다.

김 교수는 “오지호는 1948년 10월(15일~18일) 광주미술연구회 주최와 호남신문사 후원으로 첫 개인전을 갖는다”며 “당시 전시는 1920년대 동경 유학기의 작품, 1930년대 개성 송도 시절에서 1940년대 후반 남도의 풍경까지 아우르고 있어 제작 활동과 화풍의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이 중에서 현재 ‘잔설’(1926년), ‘사양=남향집’(1939) 등 총 6점 작품이 현존한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팜플렛에서 소개된 ‘사양’은 오지호가 1968년에 출간한 ‘현대회화의 근본문제’에서 ‘남향집 1939년 작 (開城寓居)’로 표기되어 있다”며 “우리에게 알려진 ‘남향집’ 원제목이 바로 ‘사양’이었던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첫 개인전에 출품된 작품목록 25번 ‘사양’은 1968년 발표된 ‘현대회화의 근본문제’에서 ‘남향집 1939년 작 (開城寓居)’로 표기되었다”며 “오지호는 팜플렛에서 ‘사양’에 대해 “초동 별이 따뜻한 어느날 오후 남향된 초가집의 흰벽과 그 앞에서 있는 늙은 대추나무의 수많은 가지의 음양의 교차 이것이 화인이다”라고 직접 설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향집’(왼쪽)과 작품배경이 된 사랑채 초당 앞에서 찍은 오지호 장남 오영우, 차남 오승우, 부인 지양진의 조카 지정희(왼쪽부터).



이 같은 근거에 따르면 현재 ‘사양’은 2013년 2월 21일 등록문화재 제536호로 지정된 ‘남향집’과 동일 작품(원제)이다.

김 교수는 남향집이 1939년도에 그려졌다는 사실은 오지호의 큰딸 영희씨의 편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편지에는 “집은 송악산 밑 초당에 있는 초가집이 아버님의 대표작품인 ‘남향집’이고 그 바로 대추집이다. 안채는 방이 셋이고, 마루 부엌, 광이며, 사랑채는 큰방이 하나 있고 앞 마루가 있다. 바로 그 방이 아버님의 방이자 화실이었다”고 적혀 있다.

김 교수는 “오지호가 살았던 개성의 초가집은 크게 살림집으로 사용된 안채와 맞은편에 화실로 사용된 사랑채가 연결된 ‘ㄱ’자형 구조”라며 “‘남향집’ 그림 속 초당은 안채가 아닌 사랑채 초당과 초당 앞에 있는 커다란 대추나무를 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학계의 논문 등에서 제기된 ‘남향집’의 1960년대 주장은 “남향집’ 배경을 개성 초당의 안채로 생각하고 오지호의 고향 화순 동복의 생가와 비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남향집’이 1939년작이라는 사실은 유족이 제공한 사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김 박사에 따르면 “한 장은 개성 안채에서 찍은 가족사진이고 다른 한 장(사진 오른쪽)은 바로 ‘남향집’ 배경이 된 사랑채 초당 앞에서 오지호의 큰아들 오영우, 둘째아들 오승우, 부인 지양진의 조카 지정희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라며 “사랑채 초당 앞에서 찍은 사진과 ‘남향집’을 비교해보면 사랑채 초가집, 늙은 대추나무와 흰벽, 돌계단, 대문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 외에도 오지호의 막내딸 오순영 씨는 지난 1월 24일 ‘김달진 미술사 이야기’ 유튜브에서 “화순 동복집은 1927년 지어진 한옥집으로 전남매일신문(1977년 2월 21일)에 게재된 사진을 보면 신축 연도와 ‘-’자형의 한옥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오순영 씨는 “아버지는 1945년 8월 18일 서울로 가서 조선미술전람회서 인가활동을 한다. 그러나 이념이 달라서 문을 닫는다. 47년까지 서울서 지내다가 48년 8월에 광주를 내려오고 이후 조대 교수를 했기 때문에 45년 3월부터는 동복을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순영 씨는 작품의 싸인만 봐도 아버지 작품 연도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지호라는 싸인을 1920년대는 점수(占壽)로, 이후부터 개성 풍경에 연어 한문으로 ‘지호(之湖), 50년대 이후로는 영어로 표기를 했다”며 “‘남향집’이 60년대 작품이라면 싸인이 영어로 돼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남향집’의 싸인은 ‘之湖로 표기돼 있다.

이 같은 여러 주장과 근거를 통해 ‘남향집’ 제작 연도는 일부 학계에서 주장하는 1960년대가 아닌 1939년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지호 작품을 광주에서 상시 볼 수 있도록 미술관이 건립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오건택 화가는 “광주가 문화중심도시라고 불리지만 그에 걸맞는 콘텐츠를 갖추기 위해서는 오지호와 그 일가를 토대로 한 ‘오지호 일가 미술관’을 건립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립미술관 이지호 관장은 “오지호 화상은 인간 오지호의 삶을 구현하는 기념관으로 활성화시키고, 광주는 예술가로서의 오지호 작품세계를 기릴 수 있는 미술관을 건립하는 것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일보 전신 옛전남매일신문(1977.12.21)에 공개됐던 1927년 신축했던 동복집(초가집이 아닌 ‘-’자형의 한옥)

헨델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건네는 메시지 ‘위로’

시립합창단, 12일 빛고을시민문화관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는 단순한 종교음악을 넘어서는 웅장한 대서사시다. 한 편의 연극을 보는 듯한 정교한 대위법과 혼돈 속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멜로디는 관객들에게 종교·철학적 메시지까지 전달한다.

광주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임창은)이 ‘헨델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오는 12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펼친다. 임창은 상임지휘자 취임을 기념하는 연주회로 오르가니스트·첼리스트 아렌트 호로스펠트를 비롯해 알토 김선정, 베이스 김대수 등이 출연한다.

‘신포니아’ 서곡으로 시작하는 1부 ‘예언과 탄생’은 테너들의 ‘내 백성을 위로하라’, ‘모든 골짜기가 높아지리라’로 이어진다.

코러스가 함께 부르는 ‘주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주가 깨끗하게 하시리라’를 비롯해 ‘오 기본 소식을 전하는 자여’, ‘우리를 위해 한 아기가 나셨다’ 등도 울려 퍼진다.

알토 파트는 ‘주 오시는 날, 누가 당하리오’,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등을 부른다. 오라토리오



‘광주시립합창단’ (광주시립합창단 제공)

특성상 배우들의 연기는 없고 종교적인 내용을 주로 담고 있지만, 서사적인 대규모 악곡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2부 주제는 ‘수난과 속죄’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겪으면서 인간의 죄를 속죄했던 대목이 담겨 있다. 먼저 ‘진실로 그가 괴로움을 감당하시라’로 막을 올린다.

뒤이어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옴다’, 베이스 ‘어찌하여 열방들이 분노하며’ 등이 계속된다. 끝으로 3부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주제로 ‘주가 살아 계심을 나는 압니다’, ‘나팔이 울리리라’ 등이 관객들을 만난다.

임창은 지휘자는 “극적인 긴장감을 조성하는 ‘메시아’는 여러 기교와 정교한 완곡조절 등을 통해 합창의 아름다움을 전달할 것이다”며 “오라토리오의 음악적 완성도와 아름다움에 관객들이 몰입할 수 있도록 좋은 무대를 선보이겠다”고 했다.

전석 1만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지역 우수디자인 국내외 공모전서 잇따라 수상

에코피스(주) ‘자율주행 수상 힐링보트’ 美 CES 혁신상 등

지역 기업들의 디자인이 올해 미국 CES 등 국내외 공모전에서 7건을 수상했다.

광주디자인진흥원(원장 김용모)에 따르면 지역 디자인기업, 중소기업의 우수 디자인들이 수상을 했다. 디자인진흥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한 ‘2024년 서남권 디자인 사업화 기반구축 사업’ 등을 통해 디자인 연구개발을 비롯해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한 바 있다.



에코피스(주) ‘자율주행 수상 힐링보트’ (사진은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5’ 전시를 앞두고 CES 혁신상에 선정됐다. 오른쪽이 대표 송현승이 디자인한 에코피스의 ‘힐링보트’는 수상제자 활동, 수질정화 기능을 갖춘 융복합 제품이다.

특히 에코피스(주)(대표 채인원)의 ‘자율주행 수상 힐링보트’(사진)는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5’ 전시를 앞두고 CES 혁신상에 선정됐다. 오른쪽이 대표 송현승이 디자인한 에코피스의 ‘힐링보트’는 수상제자 활동, 수질정화 기능을 갖춘 융복합 제품이다.

스마트 도시 분야에서 기술력, 디자인, 혁신성을 인정받았으며 2024 대한민국 굿디자인(GD) 선정, 핀업 디자인어워드 본상 수상까지 ‘3관왕’을 차지했다.

㈜디자인바이(대표 최태욱)가 디자인한 ㈜나

눔테크(대표 최무진)의 자동 심장 충격기가 2024 굿디자인 어워드 은상(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그린토크(대표 손영국)의 폴트 퍼밍 매트, ㈜에코프랑(대표 조종환)의 하수 악취저감 스마트시스템 제품 디자인이 GD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마히디자인랩(대표 허준영)이 디자인한 마마스(대표 김나연)의 모듈형 가구 ‘꿈꾸는 나의 동굴’도 핀업 디자인 어워드 본상을 받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화가 강금복·申 현대미술 하오준 교류전

한국미술센터, 내년 1월 계획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미술인들이 만난다.

2025년 목표 출간 한국화가 강금복(60)씨와 현재 중국에서 현대미술작가로 주목받고 있는 하오준(61)이 교류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미술센터 이일영 관장은 10일 “내년 1월 중 단계적인 로드맵을 완성한 뒤 한국과 중국에서 교류전을 가질 계획”이라며 “평면미술 분야의 장기적인 교류 뿐 아니라 학술세미나, 인적·관광교류 등 문화전반에 관한 물질을 늘 수 있도록 전남도와 중국 베이징시 등 지자체가 주관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강금복 작가는 지난 2013년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로비에 가로 32m, 세로 4.5m의 초대형 소나무 그림인 ‘용송의 꿈’을 설치한 작가다. 용송(龍松)은 우리나라 소나무 종류의 하나로, 강 작가의 작품은 산줄기를 움켜쥐고 하늘로 올라가는 용의 모습과 기상을 용송을 빌려 표현하고 있다.

하오준은 지난 2001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장

의 국문 제 1홀에 초대형 만리장성 벽화 ‘진산령의 아침햇빛’을 그려 이목을 끌었다. 가로 9m, 세로 4m 규모의 벽화로 중국 미술계에 화제가 됐다.

두 작가의 인연은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 CCTV(중앙텔레비전)가 목포 도립도서관에서 두 작가를 포함한 한-중 교류전을 개최하면서부터. 이후 코로나 19로 말미암아 인연은 잠시 중단됐다가 올해 하오준이 교류전 재개를 제안해오면서 다시 이어지게 됐다.

이일영 관장은 “현재 내년 상반기에 한국전, 하반기에 중국전을 갖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초대형 벽화를 그려낸 동시대 작가들의 만남을 통해 현대미술의 흐름을 짚어볼 수 있다는 점은 동북아 미술사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금복 작가는 지난달 20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전남도청 갤러리 재개관 초대전에 용송 연작과 매화 연작 등 24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용송 연작의 경우 역동적인 필치와 강렬한 색감의 대비, 가지를 붙들고 있는 연리지(連理枝)를 통해 신산한 운명을 내내하고 극복하기를 염원하는 상생



강금복 작 ‘상생’

의 숨결을 표현하고 있다.

강금복 작가는 ‘한국 소나무 뉴욕에 심다’(미국 뉴욕), 한국 수목 ‘고요한 아침’(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 54회의 개인전과 초대전을 가졌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지역 소농들의 자급자족 공동체를 꿈꾸다

맑동토종살롱, 14일 ‘지구농장터@광주극장’ 18개팀 참여

지역 소농들이 마을공유지에 모여 자급경제 시장을 구축하는 ‘지구농장터(지구농을 구하는 농부장터)’가 올해 마지막 행사를 앞두고 있다. 토종 쌀부터 상추, 들깨강정 등 정년미 넘치는 우리 식품과 수공예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 보는 것은 어떨까.

맑동토종살롱이 ‘지구농장터@광주극장’을 오는 1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영화가흐르는 골목&영화의 집(광주극장 옆)에서 연다. 자급 경제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연초부터 진행해 온 행사이며 총 18개 팀이 참여한다.

맑동토종살롱, 오도미농장은 각각 토종살 현미와 상추를, 그루·지선과 곡성자영인은 자연재배 농산물을 선보인다. 지역 소책방인 소년의서가 준비한 여성, 환경, 장애 등 도서와 빵과장미의 씨앗식빵 등도 구매할 수 있다.

에코주머니, 서리태를 판매하는 낭만지구나 들깨류를 준비한 원시인땃발도 셀러로 참여한다. 이외 말바치 빵행사 느긋, 에리카공방, 상미랑가, 용자, 지구를 짓다 등이 동참해 저마다 볼



지난 ‘지구농장터’ 행사 장면. (지구농장터 제공)

품을 선보인다.

행사와 맞물려 광주극장은 오전 10시 50분에 ‘아들들’, 오후 2시 40분 ‘이처럼 사소한 것들’, 오후 7시 ‘서브스턴스’ 등을 상영할 예정이다. 이외 연말 특집으로 부스 5곳 이상 구매자 중 3명에게 한강 ‘소년이 온다’를 증정한다(선착순)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